

“산단개발 빨리 해 줘” vs “분양 부진 애물단지”

전남도·함평군, 빛그린산단 2단계 조속 착공 요청
여수상의, 공장용지 부족 읍촌 2·3산단 조기 개발을
전남도, 목포 대양산단 등 6곳 ‘관리대상’ 골치거리

기업들이 들어설 산업단지를 만들고 공장용지를 개발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양만 되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를 한번에 해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치밀한 분양 전략도 없이 추진했다가 빈 공터로 남아있는 단지도 적지 않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근부환경과 정주환경을 바꾸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지역 산단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함평, “광주 빛그린산단 2단계 빨리 조성해라”=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LH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빛그린 국가산단 2단계 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LH측은 빛그린산단(407만1000㎡) 내 1단계 구간(광주 184만7000㎡·함평 79만8000㎡)인 264만5000㎡를 우선 조성한 뒤 2단계로 함평지역 내 142만6000㎡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전체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이지만 2단계 부지는 여태껏 미착공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전남도는 광산업 및 자동차, 첨단부품 등 전략산업이 당초 계획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오는 5월로 예정된 1단계 구간의 준공 이전에 2단계 공사에 들어가야 나누 혁신도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평군도 빛그린산단 조성으로 들어설 기업 근로자들과 가족들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 다음달 마무리되는 만큼 조속한 빛그린산단 착공을 요청하고 있다.

LH측은 올 하반기 2단계 구간에 대한 발주를 진행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나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빛그린산단의 경우 현대차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이 확정되지 않아 나머지 산업시설용지 대부분이 미분양된 상황인 만큼 선불리 2단계 착공에 들어가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여수상의, 공장용지 만들어달라=여수상의도 공장용지가 부족하니 산업단지를

빨리 개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여수상의는 최근 청와대에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읍촌 2·3 산단을 조기에 개발해 신·증설을 하고 싶어도 공장용지가 없어 힘들어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수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공장용지가 부족하다는게 상의 입장이다. 당장, GS칼텍스의 경우 올해부터 2021년까지 2조6000억원 규모의 올레핀 생산 시설 투자에 들어간다. LG화학도 2021년까지 2조6000억원을 들여 NCC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포스코도 2020년까지 5700억원을 들여 연간 4만 t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제조시설 투자를 진행중이며 8000억원 규모의 시설 합리화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나주, 에너지전용 스마트산단 조성예 총력=나주의 경우 ‘에너지전용 스마트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혁신산단(분양률 70%), 신도산단(분양률 86%) 등의 분양률을 고려해 산업용지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만큼 국가산단 조성 및 분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산업입지정책 심의회를 열어 나주를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나주는 올해 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최종 국가산단 지정을 받게 된다.

나주는 이같은 점을 감안, 투자유치전담반을 꾸려 매출 3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위주로 유치하는 전략과 산·학·융복합 캠퍼스, 한전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 착공,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혁신산단에 경영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가산단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골치거리 산단들, 어쩌나=분양 부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산업단지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분양률 50%’에 미달하는 산업단지들로 ▲목포 대양산단(분양률 48.1%) ▲목포 세라믹산단(“ 30.6%) ▲담양산단(“ 40.8%) ▲장흥 바이오산단(“ 33.8%) ▲순천 해룡산단(“ 46.4%) ▲광양 세풍산단(“ 1.2%) 등 6 곳이다.

◇노후화된 산단 개선도 어렵네=광주·전남 국가산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광주·전남 4개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고도화사업’ 참여사업자를 모집중이지만 여태껏 신청자가 없는 실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17.77 (-6.84)	↓ 금리(국고채 3년) 1.80 (-0.02)
↓ 코스닥 694.55 (-1.07)	↑ 환율(USD) 1130.50 (+2.40)

지난해 경제성장률 2.7%...6년만에 최저치

반도체 수출까지 흔들려
건설투자 20년만에 가장 부진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실질 GDP는 전년보다 2.67% 증가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000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도의 2017년 3.1% 성장률을 보였지만 2년 연속 3%대 성장은 끝내 무산됐다.

부문의별로는 정부 소비가 5.6%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민간소비 증가율도 2.8%로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건설투자(-4.0%)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부진했고 설비투자(-1.7%)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였다. 지식재생산물투자(2.0%)도 3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한은은 “투자는 전년에 큰 폭 증가한 후 조정국면이었는데 외부 경제 불안요인으로 조정이 더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은 연간으로는 4.0% 증가하며 5년 만에 최고였다. 수입은 1.5% 늘었다. 제조업(3.6%)은 성장세가 둔화했고 건설업(-4.2%)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2.8% 성장하며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1.1%로 10년 만에 최저였다. /연합뉴스

2월~4월 광주·전남 4916가구 집들이

광주 2597가구·전남 2319가구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광주·전남 49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부터 향후 3개월간 광주·전남에서 4916가구가 집들이를 맞을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3개월 간 2597가구가 집들이를 하고 전남에서는 2319가구가 새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이다.

2월에는 광주의 경우 ▲광산구 도산동 송정KTX 2차 우방아이유엘 591가구 ▲ 송정동 송정역 숲안에 2차 147가구 ▲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1111

가구 ▲광주시 남구 주월동 영구임대 288가구가 입주하고 전남에서는 ▲장성군 영천지구 공공실버 영구임대 150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3월 입주 물량은 ▲목포시 산정동 근화 삼학배아채 78가구 ▲여수시 웅천동 꿈에그린 1단지 C4-2블록 333가구 ▲ 웅천동 꿈에그린 2단지 C4-3블록 1448가구 등이다.

4월에는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첨단 금호아울리 더 테라스 460가구 ▲순천시 조례동 영무에다움 31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30억 이하도 혜택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

점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진다. 기존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천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300억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광은리더스클럽’ 복지시설 사랑나눔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2일 오전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회장 김홍균) 회원들의 이웃사랑 뜻을 모아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복지시설인 동구 소재 ‘해맑은지역아동센터’와 북구 소재 ‘멘토지역아동센터’에서 각각 진행했으며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은 가전제품과 학용품 및 성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아동들을 격려했다.

광은리더스클럽 김홍균 중앙회장(남천산업 회장)은 “우리지역 최고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은 2007년 창립 이래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등 지역민과 상생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송중욱(왼쪽 세번째) 은행장과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이 아동복지시설에 후원품을 전달한 뒤 아동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짚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 편안함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수GOOD! | 아온, 실크, 이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다른 욕망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